

주요개념 : 산욕기 어머니, 스트레스, 영아지각

##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과의 관계\*

이영은\*\* · 강양희\*\*\* · 박혜선\*\*\* · 강인선\*\*\*\*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란 분만 후 6-8주를 말하며 이 시기의 어머니는 다른 어느 시기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회복이라는 과제 외에 신생아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학습과 신생아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신생아 양육을 위한 역할습득이라는 더 많은 과제가 부과 된다. 따라서 산욕기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원에 노출되고, 새로운 역할과 관계 형성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불안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출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스트레스원과 산후변화로 인해 부모역할 전환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기간일 수 있다(최연순, 1999). 스트레스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지요소가 중요하게 관여하는 정신현상으로서 개인이 처한 상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오가실, 1985).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해석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과거경험, 사회적 역할, 현재의 질병과 같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현상이라는 점이 지배적인데 이는 같은 스트레스원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심리적·병태생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스트레스원에 직면하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한편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이화자 등, 2000). 따라서 간호사는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사정하고, 개별적인 간호 중재를 통해 어머니 역할획득이라는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정확히 사정하여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

\* 본 연구는 2005년도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세화병원 간호사

교신저자 강양희 : lamb33@chol.com

공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각은 감각기관에 들어온 자극에 통합성을 부여하여 경험으로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영아지각은 모아관계를 형성하는 시작 단계로 애착행위와 관계가 있는데 영아지각은 영아의 실제 상태보다 어머니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므로(조수현 1990; 송명자, 1998; Broussard, 1979) 어머니의 영아지각을 정확히 알아보고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하도록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이자형(1986)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각은 출생 이후 전 생애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올바른 모아관계 형성에 필수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는 영아의 기질, 행위와 신체적 모습에 대한 어머니의 최초의 반응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희망과 공포인데 이는 자기 영아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지각에 대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산욕기의 어머니들은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 및 영아에 대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구현영, 문영임, 1998). 조수현(1990)은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은 모아관계를 형성하는 시작단계로 애착행위와 관계가 있는데 이는 어머니와 신생아의 접촉발달에 중요하며, 애착행위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욕기의 주요 간호 목표인 산욕기 어머니의 임신·분만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 회복과 정서·심리적 재적응 및 아기의 출생으로 인한 어머니 역할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욕기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와 영아

지각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임상에서의 간호중재시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고 이를 통하여 적합한 실무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 정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산욕기 산모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영아지각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4년부터 9월1일부터 동년 10월15일까지 B광역시 소재한 1개 여성전문병원과 3개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산욕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만 후부터 8주 이하의 산모로서 합병증이 없고, 재태기간 37주 이상 42주에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상 4,000g 미만의 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는 영아를 분만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1개 여성전문병원과 3개 산후조리원의 해당 기관장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자가 대상자가 입원한 병동, 또는 산후 조리원에 근무하는 4명의 간호사를 연구 보조원으로 선정하여 훈련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산모 자신이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한 후 수집하였다.

산욕기 어머니 총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부적절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4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20분 이었다.

### 3. 연구 도구

#### 1) 스트레스 측정도구

스트레스 반응은 워싱턴대학교 간호대학 스트레스반응 관리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이소우(1992)가 번역한 Symptom of Stress(SOS)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말초혈관증상군, 심폐증상군, 중추신경계증상군, 위장계증상군, 근육긴장증상군, 습관적행동형태군, 우울증상군, 불안증상군, 근육긴장증상군, 인식력장애군 등 1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된 9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치가 .70을 넘을 때는 그 스트레스반응 증상군에 대하여는 추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소우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 = .95$ 이었다.

#### 2) 영아지각 측정도구

영아지각 측정도구는 Broussard(1979)가 개발하고 이자형(1986)이 수정·보완한 신생아 지각목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영아에 대한 지각과 자신의 영아 지각을 측정하였다. 즉, 영아의 정상적인 행동으로서 울음, 구토, 수유, 수면, 배설, 습관형성, 목욕, 안위, 고통, 불편함, 표현활동, 듣기, 보기, 미소, 닭기의 15개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느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반 영아에 대해 지각하는 점수에서 자신의 영아에 대해 지각하는 점수를 뺀 숫자가 양수(+)인 경우는 긍정적인 지각을, 0이나 음수(-)인 경우는 부정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자형(198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제 특성에 따른 비교는 t-test와 ANOVA, Scheffe 검증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제 특성<표 1>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b>어머니 측</b>				
연령(세)	(최소 23, 최대 40)			29. 9± 3.20
결혼기간(개월)	(최소 1, 최대 152)			35.12±26.48
가정의 월 평균수입(만원)	(최소100, 최대1500)			257.9±140.63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계속)

(N = 14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원하던 임신여부	예	132	91.7	
	아니오	12	8.3	
학력(어머니)	고졸	36	25.0	
	전문대졸	50	34.7	
	대졸이상	58	40.3	
학력(아버지)	고졸	19	13.1	
	전문대졸	30	20.7	
	대졸이상	96	65.2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	상	6	4.1	
	중	129	89.0	
	하	10	6.9	
종교	기독교	44	30.3	
	천주교	12	8.3	
	불교	40	27.6	
	기타	49	33.8	
출산력	초산	85	58.2	
	경산	61	41.8	
규칙적 산전간호	받았음	106	73.6	
	안 받았음	38	26.4	
육아경험	있음	59	40.4	
	없음	87	59.6	
육아와 관련된 교육경험	있음	105	72.4	
	없음	40	27.6	
동거가족	남편	136	92.5	
	남편+시부모	10	6.8	
	남편+친정부모	1	.7	
주 양육 및 살림	본인	100	69.4	
도움자	남편	5	3.5	
	시어머니	11	7.6	
	친정어머니	22	15.3	
	언니, 동생	3	2.1	
	기타 친척	3	2.1	
결혼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7	
	불만족	3	2.0	
	보통	27	18.4	
	만족	89	60.5	
	매우 만족	27	18.4	
출산 후 부부관계 변화	더욱 좋아졌다	73	50.0	
	변함없다	71	48.6	
	더 나빠졌다	2	1.4	
양육에 관한 남편과의 의논정도	자주	88	59.9	
	보통	57	38.8	
	거의 않는다.	2	1.4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계속)

(N=14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좋은 편	93	63.3	
	보통	49	33.3	
	나쁜 편	5	3.4	
<b>영아측</b>				
연령(일)	(최소 2, 최대 56)			10.21± 7.23
출생시 아기체중(gm)	(최소2500, 최대4000)			3309.7 ±333.59
성별	남	80	54.4	
	여	67	45.6	
출생순위	첫째	82	55.8	
	둘째	57	33.8	
	셋째	8	5.4	
	일치	94	63.5	
원하던 영아 성별과의 일치여부	불일치	52	35.1	
	자연분만	96	65.3	
분만형태	제왕절개	51	34.7	
	모유수유	63	42.9	
	인공수유	5	3.4	
수유형태	혼합수유	79	53.7	
	있음	7	4.9	
	없음	137	95.1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영아지각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75.6±38.3(도구 범위 0-376), 평균평점 .8± .4( .14-2.20)로 스트레스 관리 간호기준인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아지각 정도는 평균 -5.8±5.6(도구범위 -60-+60), 평균평점 -. 4± .4(-1.53- .47)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영아지각 정도 (N=148)

변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스트레스 정도	75.6±38.3	.8± .4
영아지각 정도	-5.8± 5.6	- .4± .4

3.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영아지각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F=6.187, P= .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좋은 편이라고 한 경우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아지각 정도는 규칙적인 산전간호여부(t=2.928, P= .004),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F=3.668, P= .02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규칙적인 산전간호를 안 받았던 산모보다는 규칙적으로 받았던 산모에게서 영아지각 점수가 높았으며,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을 중간이라고 한 경우가 하라고 지각 한 경우보다 영아지각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

특성	구분	스트레스 정도				영아지각 정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heffe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heffe
규칙적 산전간호	받았음	72.73±35.55	-1.299	.197		6.75±6.11	2.928	.004**	
	안 받았음	83.61±44.92				3.46±4.99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	상 <sup>a</sup>	80.20±40.51	0.351	.705		5.50±9.18	3.668	.028*	b>c
	중 <sup>b</sup>	76.47±39.10				6.37±5.84			
	하 <sup>c</sup>	64.43±26.81				0.89±3.10			
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좋은편 <sup>a</sup>	68.49±31.04	6.187	.003**	c>a	6.15±6.53	.391	.677	
	보통 <sup>b</sup>	84.03±43.62				5.57±5.13			
	나쁜편 <sup>c</sup>	127.00±60.49				4.00±4.06			

\* p< .05, \*\*p< .01,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영아지각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영아지각 정도와 어머니 스트레스 정도의 상관관계는  $r = -.210(p = .03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역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지각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영아지각 정도와의 관계 (N=148)

변수	영아 지각 정도
스트레스 정도	$r = -.210(p = .030)^*$

\* p< .05

## IV. 논 의

산욕기 산모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평균 75.6±38.3, 평균평점 8±.4로 스트레스 관리 간호기준인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미경(1998)의 저체중 출생아 어머니의 모아상호 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재 프로그램 전에 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 .69로 낮은 점수를 보였던 것과 구현영과 문영임(1998)이 산욕초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신생아 지각 간의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주 낮게 나왔다고 보고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와 측정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권미경(1998)의 연구에서는 아직 직접 아기를 양육해 보지 않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저체중 출생아의 퇴원 시점에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였기에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산욕기 기간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와 더불어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좀 더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산욕기 어머니의 자신의 영아에 대한 지각은 평균 -5.8±5.6, 평균평점 -4±.4로 나타나 자신의 영아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자 등(2003)의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및 교육요구도 비교연구에서 정상 신생아 어머니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에 비해 신

생아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오현주(2000)의 정상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 활동자신감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점수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에 비해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권미경(1998)의 저체중출생아와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처치 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지각을 측정된 경우에는 평균  $3.92 \pm 5.38$ 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와 측정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8주까지의 산육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반면 권미경(1998)의 연구에서는 저출생 체중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퇴원 후 1달 경에 영아에 대한 지각을 측정된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상영아 어머니와 미숙아 어머니의 영아지각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들의 영아지각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F=6.187, P=.00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좋은 편이라고 한 경우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인지요소에 따른 것으로 현재 처한 상황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영아지각 정도는 규칙적인 산전간호여부( $t=2.928, P=.004$ ),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 $F=3.668, P=.028$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규칙적인 산전간호를 안

받았던 산모보다는 규칙적으로 받았던 산모에게서 영아지각 점수가 높았으며,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을 중간이라고 한 경우가 하이라고 지각한 경우보다 영아지각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앞으로 영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위한 산육기 어머니들의 간호중재시 고려되어야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만한 영아지각과 관련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지각과 관련변인을 알아보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산육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의 관계는 유의한 약한 역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지각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양자와 조결자(2000)의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 연구도구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상 영아 어머니와 입원한 고위험 영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육기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지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육기 어머니의 역할획득을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영아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산육기 어머니와 영아를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 연구결과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영아지각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원만한 어머니 역할획득을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소재 1개 여성전문병원과 3개 산후조리원에서 입원 중인 산욕기 산모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워싱턴대학교 간호대학 스트레스반응 관리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이소우(1992)가 번역한 Symptom of Stress (SOS)도구(도구범위 평균 0-376, 평균평점 0-4)를 사용하였다. 영아지각 측정도구는 Broussard(1976)가 개발하고 이자형(1986)이 수정 보완한 신생아 지각목록(도구범위 -60~+60, 평균평점 -4~+4)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구한 후 연구자와 훈련된 4명의 연구보조원이 입원 중인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산모 자신이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한 후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평점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75.6 \pm 38.3$ (도구범위 0-376), 평균평점  $.8 \pm .4(0-4)$ 로 스트레스 관리 간호기준인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지각 정도는 평균  $-5.8 \pm 5.6(15-75)$ , 평균평점  $-.4 \pm .40(1-5)$ 으로 약간 부정적이었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있는 변인은 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 $F=6.187, P=.003$ )이었으며, 영아지각 정도와 관련 있는 변인으로는

규칙적인 산전간호 여부( $t=2.928, P=.004$ ), 본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수준( $F=3.668, P=.028$ ) 등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영아지각 정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약한 역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10, p=.030$ ).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지각 정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영아지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산욕기 어머니들의 어머니 역할획득을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영아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2.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3. 산욕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구현영, 문영임 (1998). 산욕초기 어머니의 스트레스, 불안 및 신생아 지각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3), 616-624.
- 권미경 (1998). 저체중출생아와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8). 발달심리학, 학지사, 78-80.
- 오가실 (1985). 가정의 기능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간호학 논집, 8, 27-53.



- 오현주 (2000). 정상 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지각과 신생아돌보기 활동자신감 정도,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 서현선, 홍유희, 김소연, 유은주, 박소연 (2003). 정상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및 교육요구도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9(1), 18-27.
- 이소우 (1992).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양상, 간호학회지, 22(2), 238-237.
- 이자형 (1986).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사정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6(3), 67-77.
- 이자형 (1996).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간호과학, 8(1), 97-108.
- 이화자, 김영혜, 이영은, 이지원, 전화연, 권수자, 김정순, 백경선, 안민순, 이은주, 임현빈, 권봉숙, 정향미 (2000). 아동간호학각론. 서울, 정답, 178-218.
- 조수현 (1990).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애착행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양자, 조결자 (2000). 조기출산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부모역할 스트레스 및 불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4), 493-505.
- 최연순 (1999). 여성건강 간호학 I, 서울: 수문사.
- Broussard, E. R. (1979). Assessment of the adaptive potential of the mother-infant system; The neonatal perception inventory, Seminars in Perinatology, 3(1), 91-100.
- Gruis, M. (1997). Beyond Maternity Postpartum concerns of mothers.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 182-188.

---

---

## ABSTRACT

Key Words : Mothers in postpartum period, Stress, Perception of infant

# The Relationship of Stress and Infant Perception of Mothers in Postpartum Period\*

Lee, Young-Eun\*\* • Kang, Yang-Hee\*\*\* • Park, Hae-Sun\*\*\* • Kang, In-Sun\*\*\*\*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tress in postpartum period and perception of infant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2004 to October 15, from one women's hospital and three facilities for taking care of women's health after delivery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nd analyzed by SPSS/12.0 program frequency, percentage rate, mean, standard deviation, average, the maximum value, the minimum value and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1. The degree of stress of subjects was  $75.6 \pm 38.3(0-376)$  in average, and  $.8 \pm .4(0-4)$  of

average point, and the degree of perception of infant was  $-5.8 \pm 5.6(15-75)$  in average and  $-.4 \pm .4(1-5)$  of average point. The relationship of degrees between the stress of subject and conception of infants that showed weak reverse relation( $r = .210$ ,  $p = .030$ ). That is, the more the stress of subject was high, the more the perception of infant is relatively indefinite. **Conclusion:** As a result, The stress of mother in postpartum period was a level to be in need of management and the perception of infant was slightly negative. thus, the introduction of nursing assistance program is necessary to relieve the stress of mother in postpartum period to promote the affirmative perception of infant.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sin University Research Fund(2005)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osin University

\*\*\*\* Nurse, Saehwa Hospital